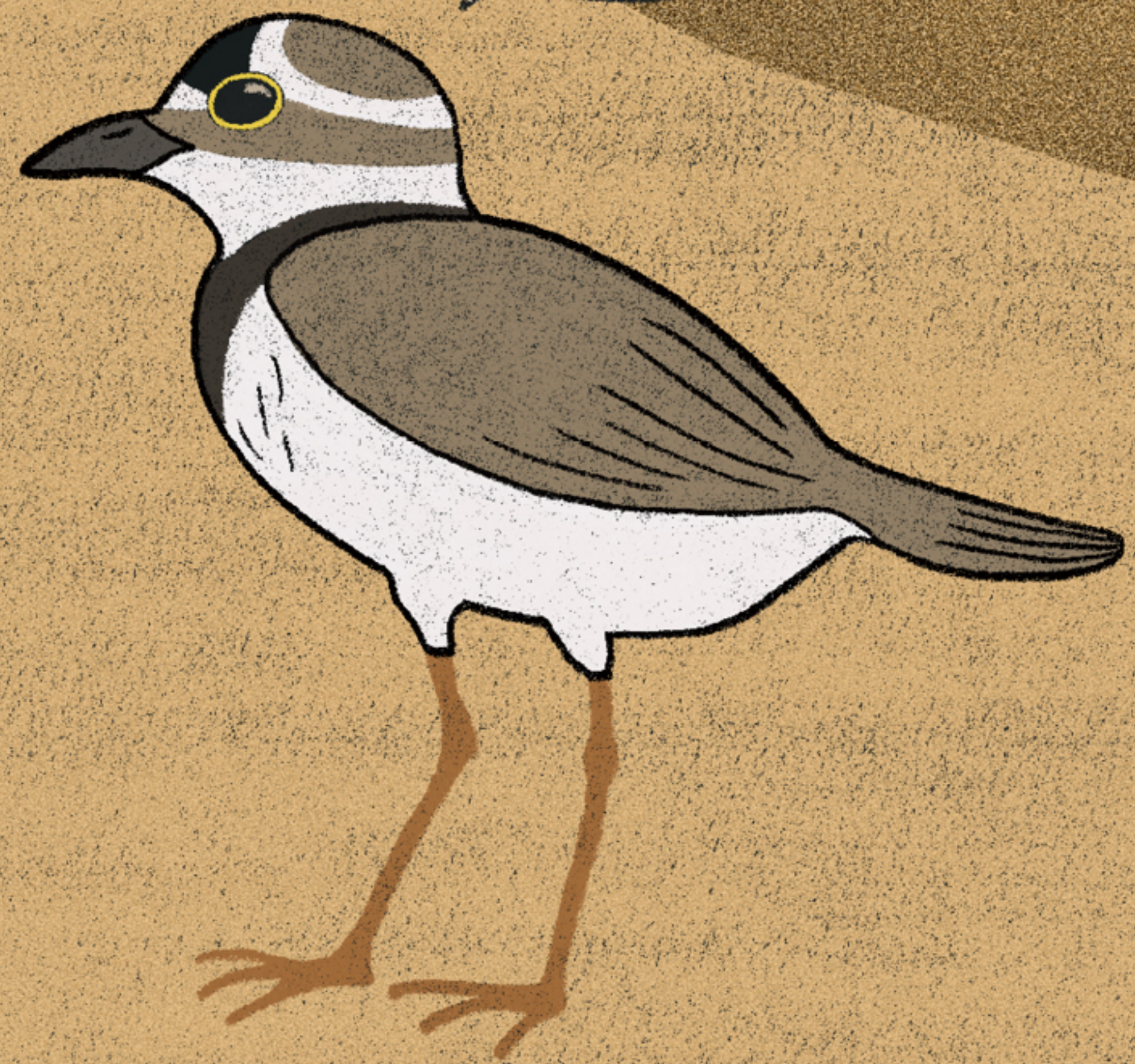


인녕? 흰목물떼새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자다운로드



생태지평소개

이 책은 누구나 흥미롭게 읽으며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책이에요.

중간중간 QR코드를 발견한다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봐도 좋아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재미있는 그림도 보고
퀴즈도 풀고, 미로 찾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다 보면
어느새 흰목물떼새에 대해서
이미 알아버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흰목물떼새를 만나러 가볼까요!

지원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자와 출판사
양측의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거나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QR코드를 찍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상태로 QR코드를 비추고,
링크가 연결되면 터치하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유튜브에서 '생태지평'을 검색하고, 재생목록에서
'안녕? 흰목물떼새야!'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쌩쌩 달리는 차 안.
나리와 이삭이가 옛날 사진 한 장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촌 우리 진짜 여기 가는 거예요?

물이 완전 맑아! 모래사장 때문에 바다 같아요!

엄청 멋지지! 너희들도 마음에 들 줄 알았어.

삼촌 어릴 땐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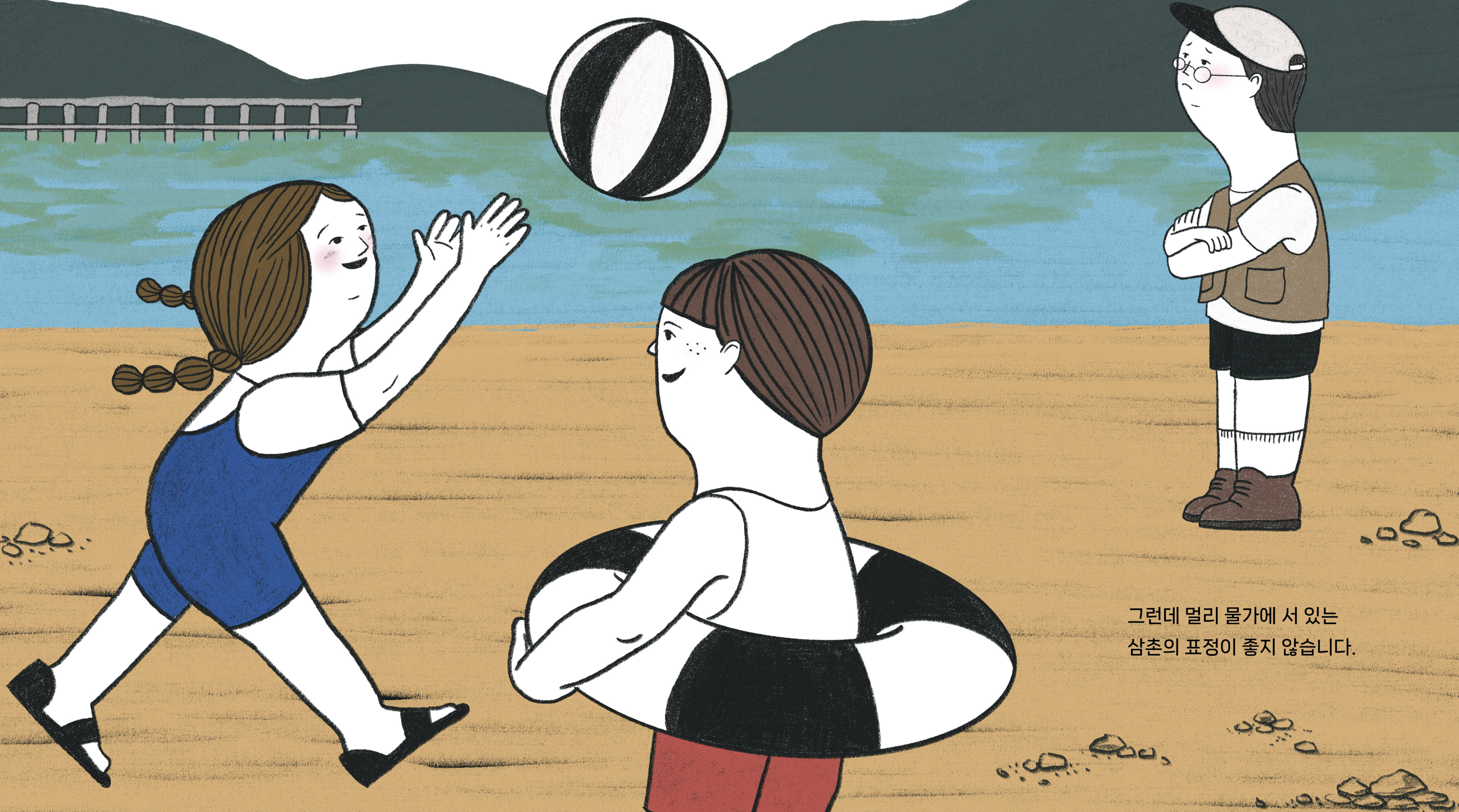
나리와 이삭이는 삼촌의 이야기보단
사진 속 어린 삼촌의 뽀뽀머리가
더 재미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외나무 다리도 보입니다.

잔뜩 기대한 나리와 이삭이가
튜브를 꺼내며 부산스럽게 준비합니다.

야호! 드디어 도착이다!



그런데 멀리 물가에 서 있는
삼촌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물놀이는 어려울 것 같다. 애들아."

돌아온 삼촌이 말했습니다.

"어? 왜요?"

"지금 물에서 냄새도 나고, 녹색빛이 나지?
녹조현상 때문인데 물에 독성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된단다."

"아..."

나리와 이삭이의 표정이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하던 물놀이를 하지 못해
시무룩해진 나리와 이삭이가 강변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바닥의 돌멩이를 차며 걷던 아이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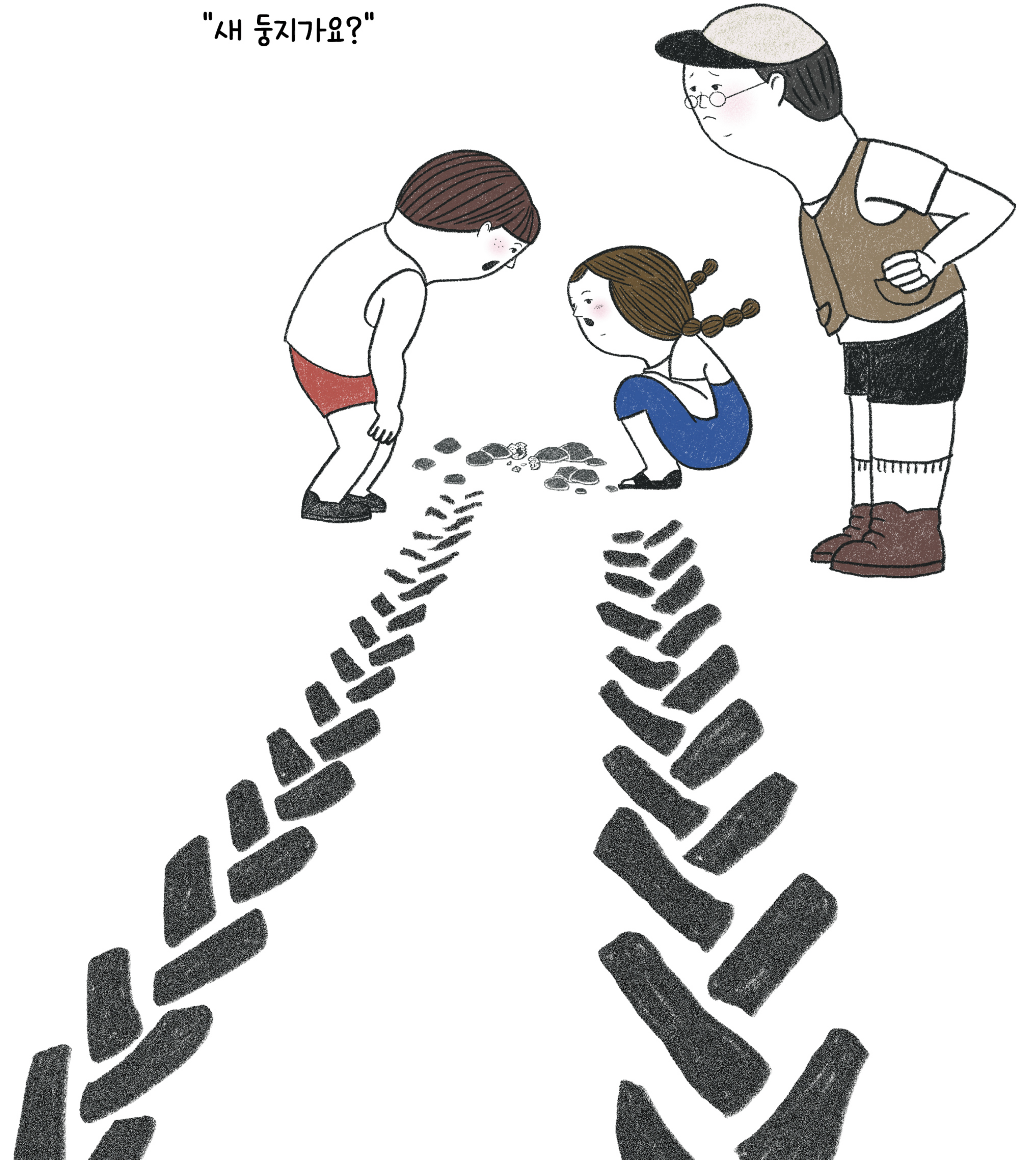


깨진 알껍데기 주변에는 커다란 바퀴자국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흰목물떼새 둥지가 트랙터에 깔린 것 같구나."

삼촌이 슬픈 듯 말합니다.

"새 둥지가요?"



삼촌! 새 둥지가 왜 바닥에 있어요?

맞아요. 새는 원래 나무 위에 집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하하. 맞아. 보통 새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짓지.
그런데 흰목물떼새는 이렇게 넓은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둥지를 짓는단다.

"이것 좀 볼래?"

삼촌이 스마트폰으로 흰목물떼새의
둥지 사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우와! 돌 위에 있는데 안 꺼지나요?"

"맞아요! 새 둥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좀 신기하지?"



"어!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도 없는데..."

"그러게요! 알이 막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오, 좋은 질문이구나!

삼촌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어요.

나리 말처럼 우산이 없으니 비가 와도
꼼짝 없이 알이 식지 않게 품고 있어야하지.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삭이 말대로
둥지가 떠내려가기도 한단다.

"또 아주 더운 날에는 알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몸을 물에 적셔서 온도를 낮춰 주기도 해."



힘들겠다. 선풍기 같은 걸 틀어주면 좋을까요?



에이, 말도 안돼, 여기서 선풍기를 어떻게 트냐?



그래도 불쌍하잖아...

"어쩌면 시원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다."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계속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흰목물떼새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경계할 거야."

"왜요? 우리가 너무 커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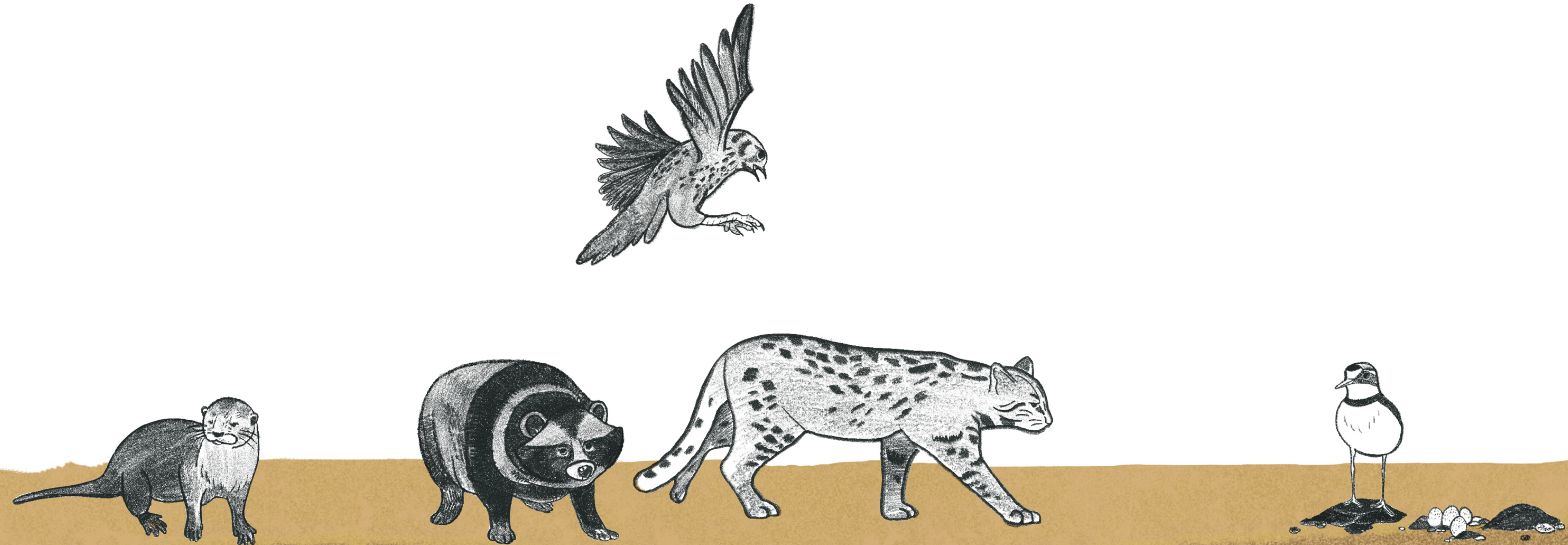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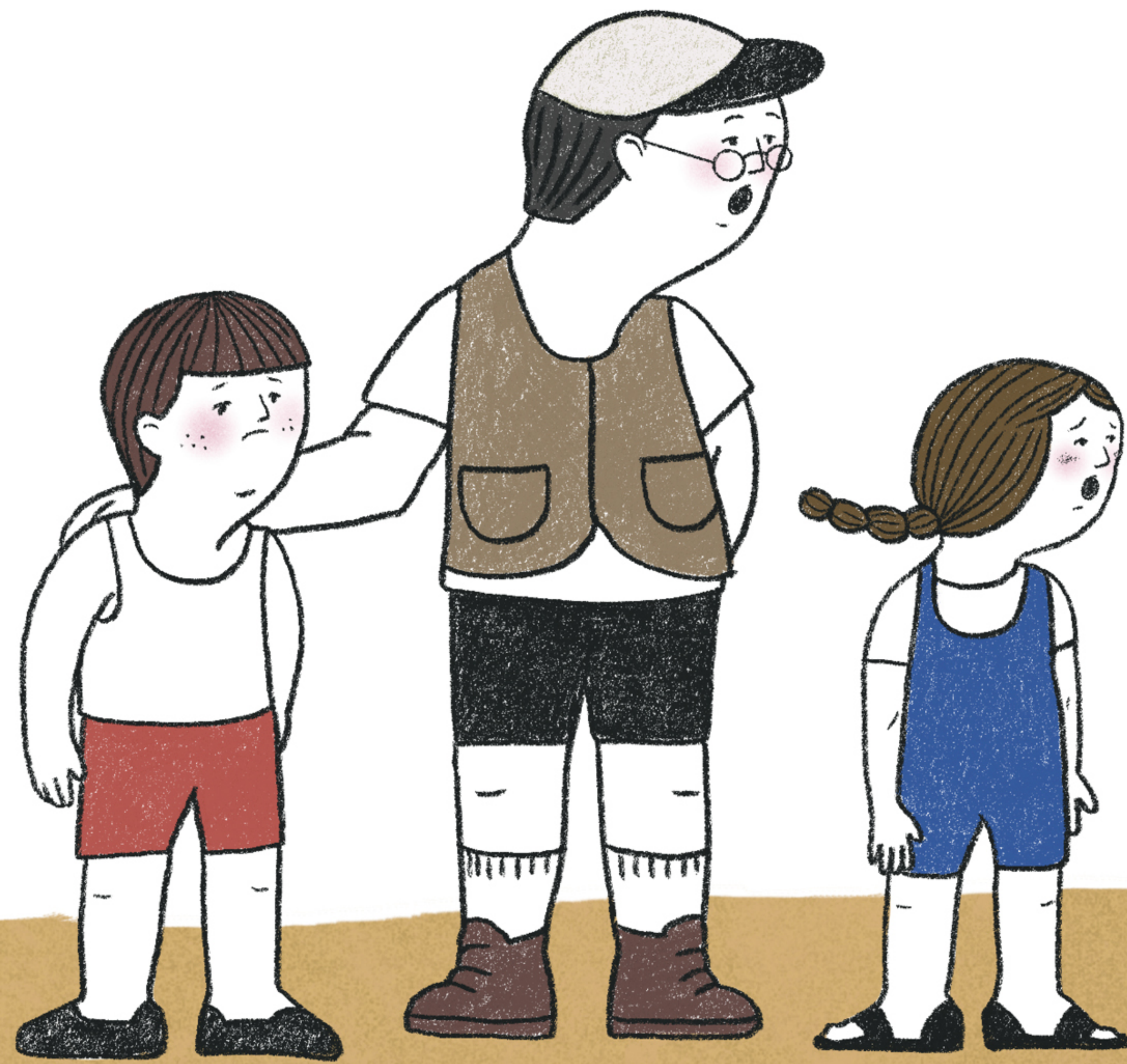
"보통 다른 동물들은 흰목물떼새나 알을 잡아 먹으러 다가가거든."

"알도 먹어요? 너무해요!"

"너희들도 달걀을 먹잖니. 야생 동물에게 새의 알은 좋은 영양분이란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불쌍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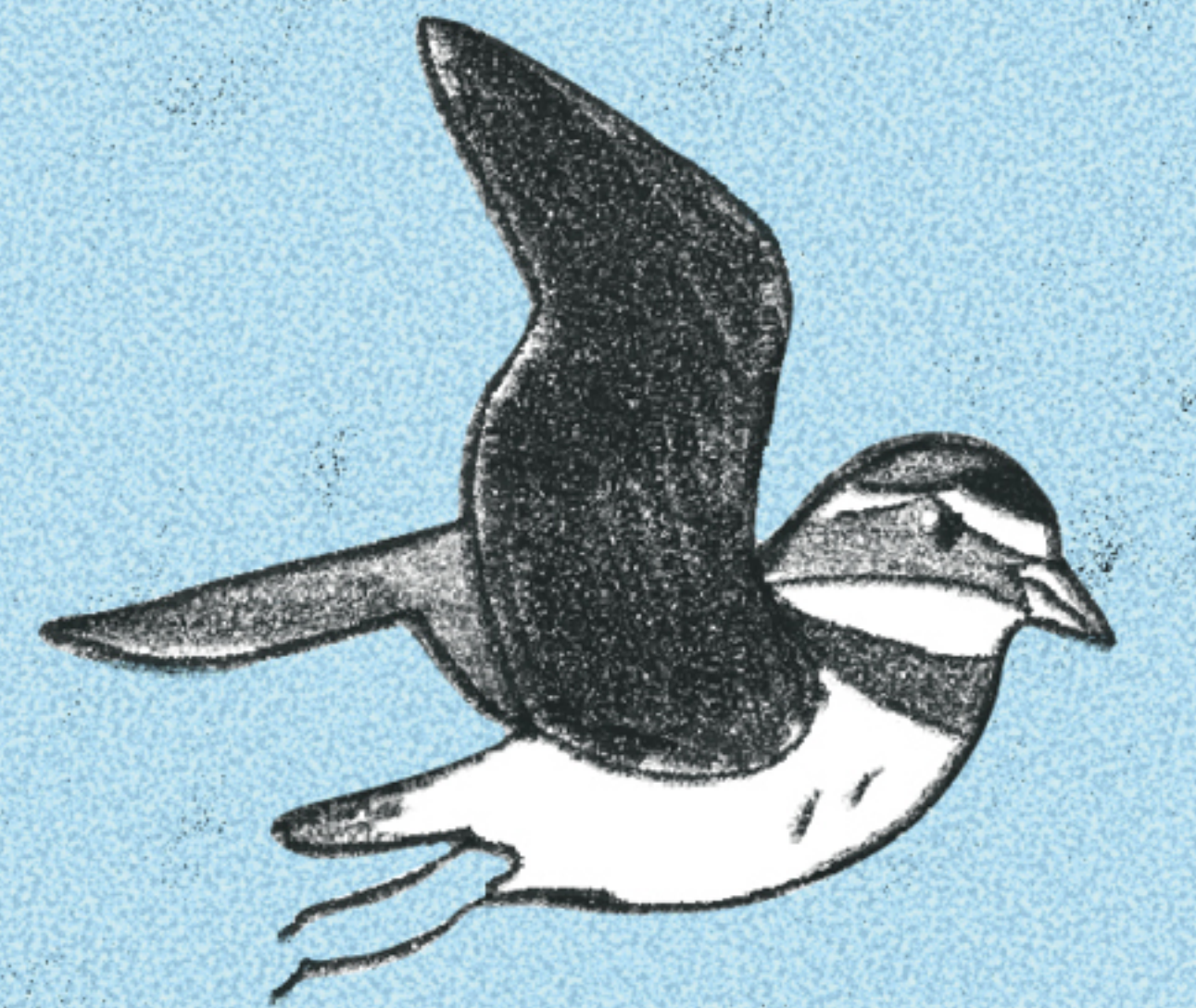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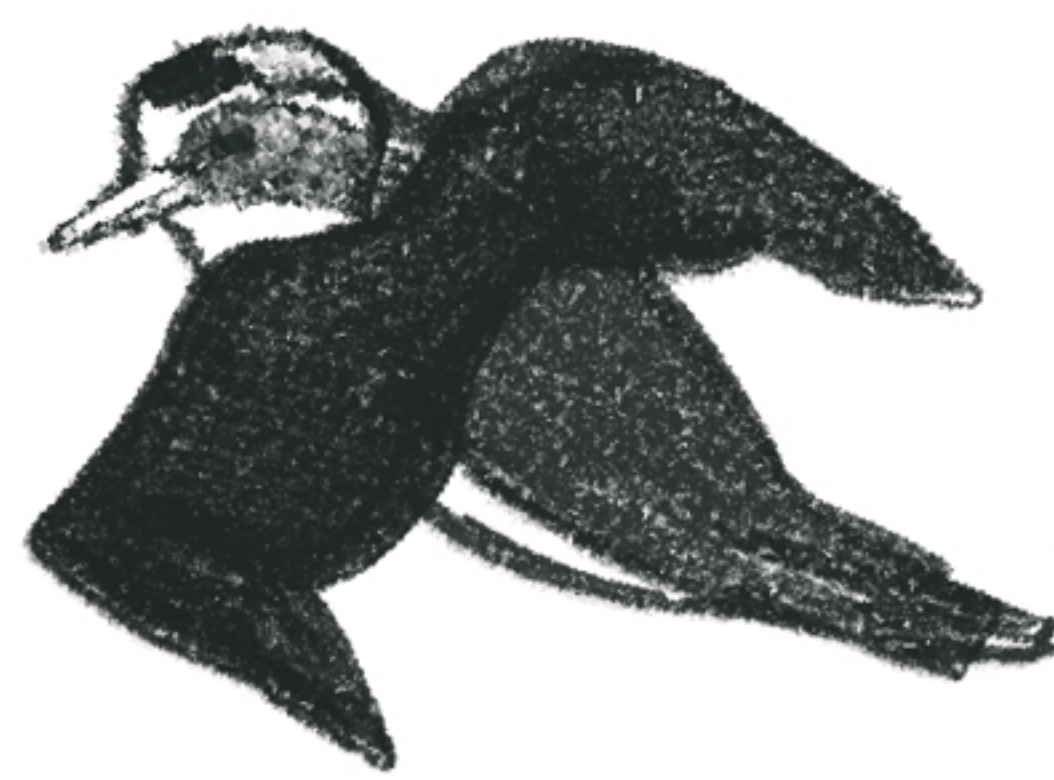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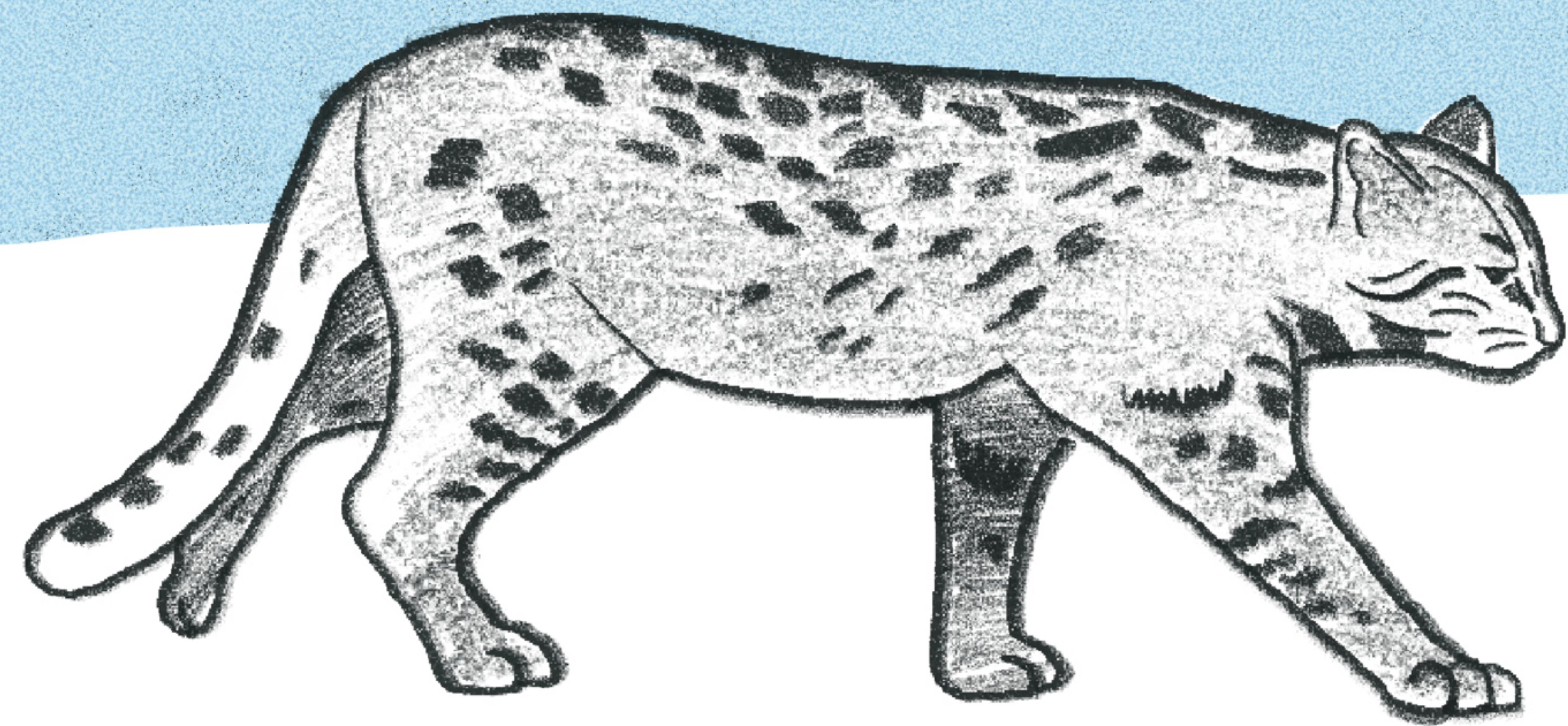
"너무 걱정하지 마렴.
흰목물떼새도 알을 지키는 방법이 있단다. 싸우지 않고 말이야."

"안싸우고 알을 지킨다구요?"

"어떻게요? 삼촌?"

"궁금하지? 그건말이야..."

삼촌은 흰목물떼새가 다친 척 연기를 해서
천적을 등지로부터 멀리 유인한 뒤,
날아서 도망가는 방식으로
둥지를 지킨다고 설명해줍니다.



"새가 연기를 해서 다른 동물을 속이다니! 신기해요!"

"맞아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속이는지 동영상으로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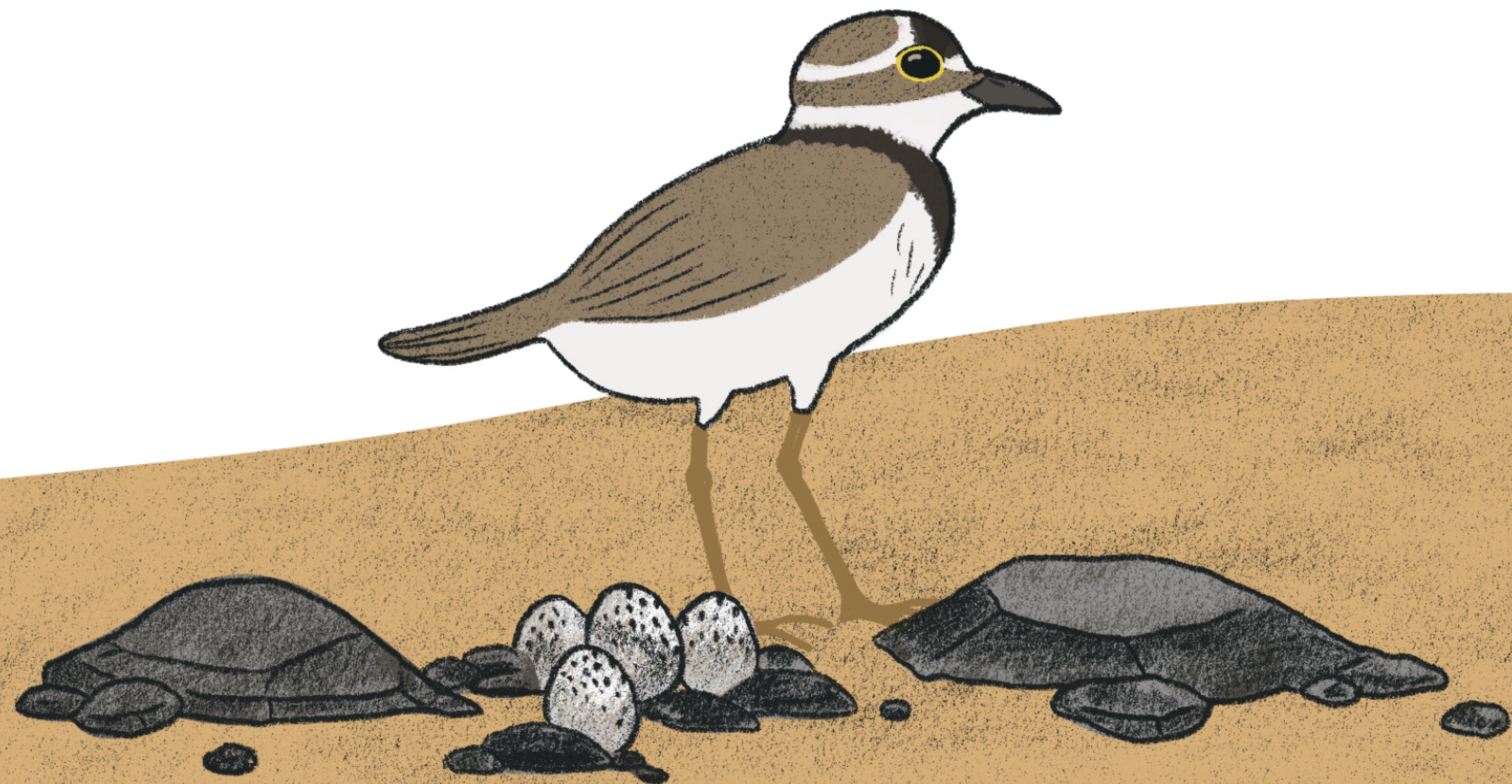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흰목물떼새는 천적보다는 사람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단다."

"사람 때문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다."



삼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강과 하천을 공사하면서 흰목물떼새들이 살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거든."

"흰목물떼새도 도시에서 같이 살면 안되나요? 우리 동네는 비둘기도 엄청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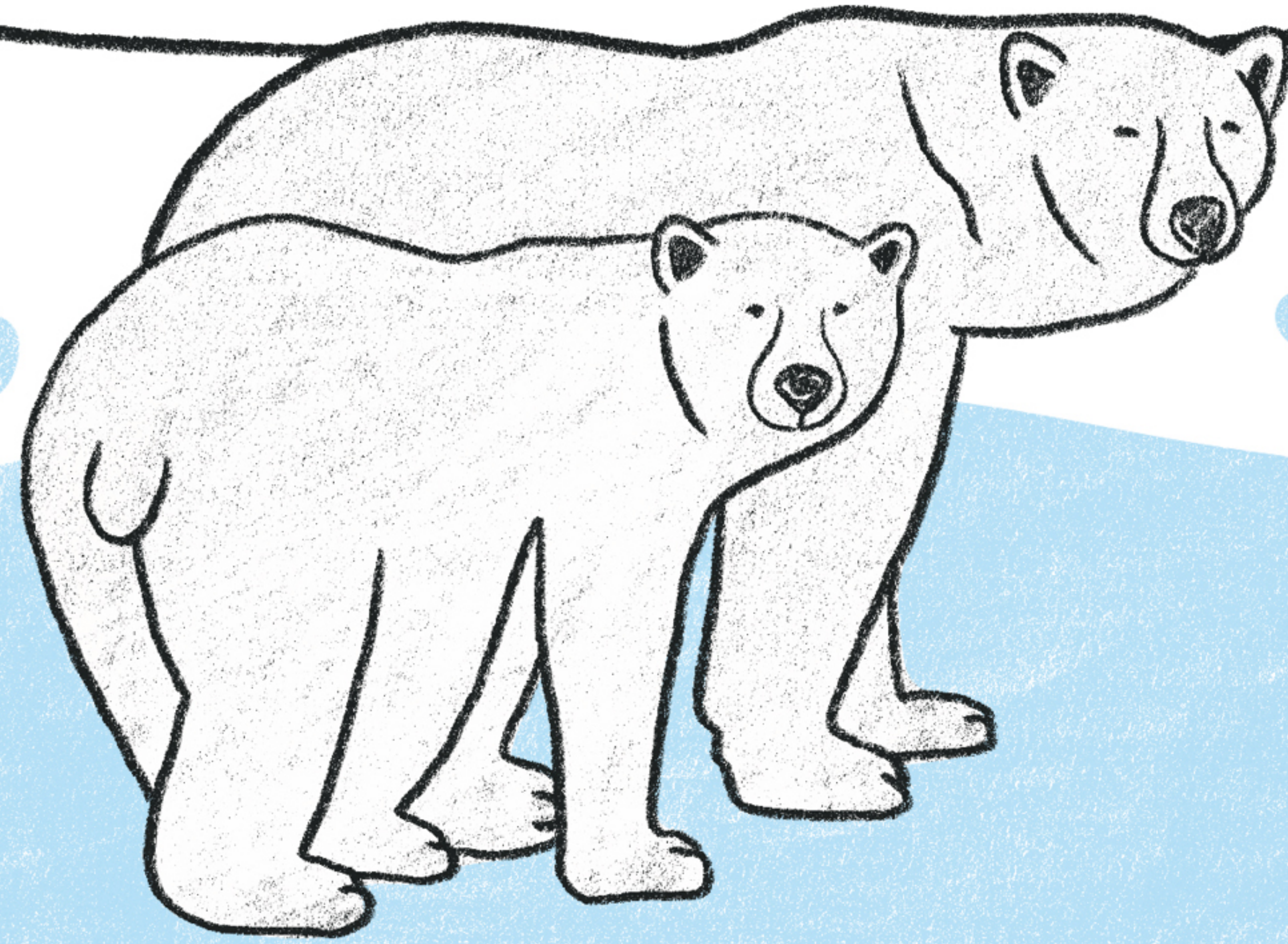
"그런데 동네에는 모래밭이나 자갈밭이 없잖아."

"아, 맞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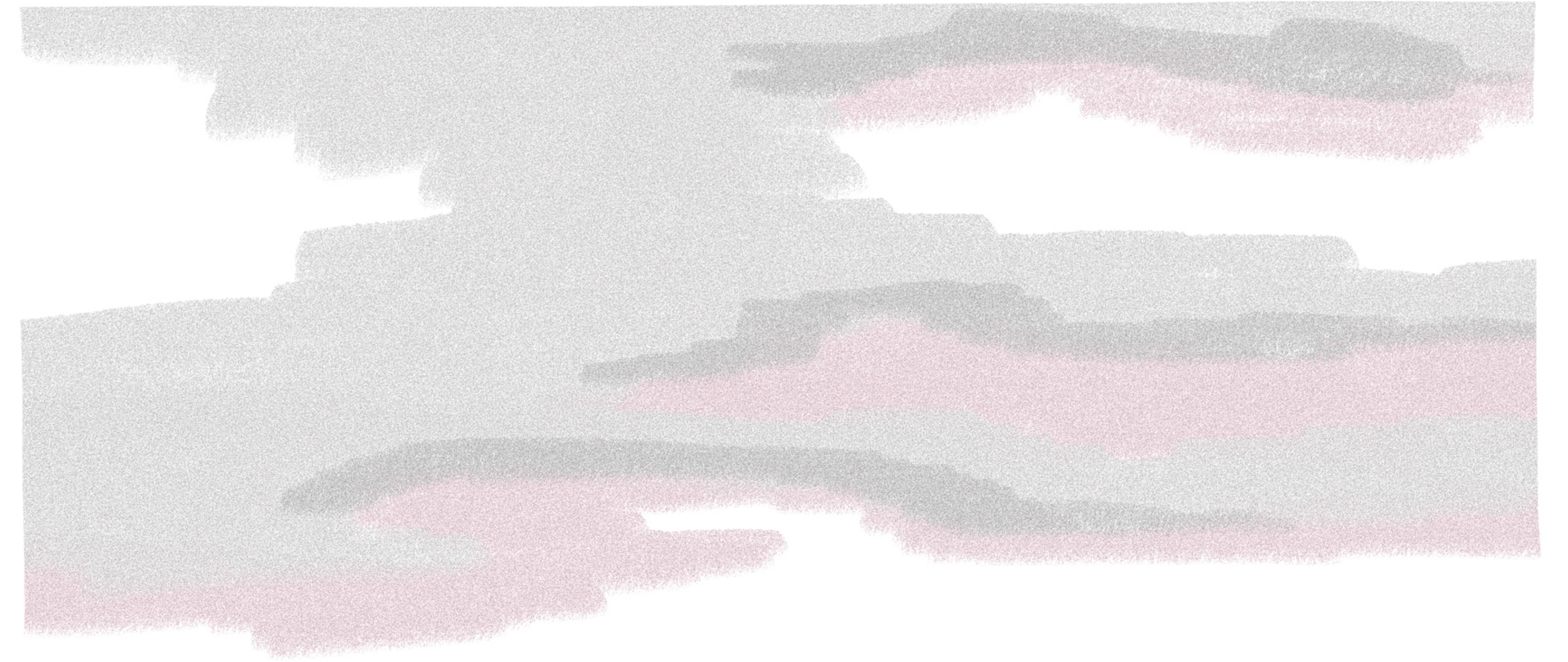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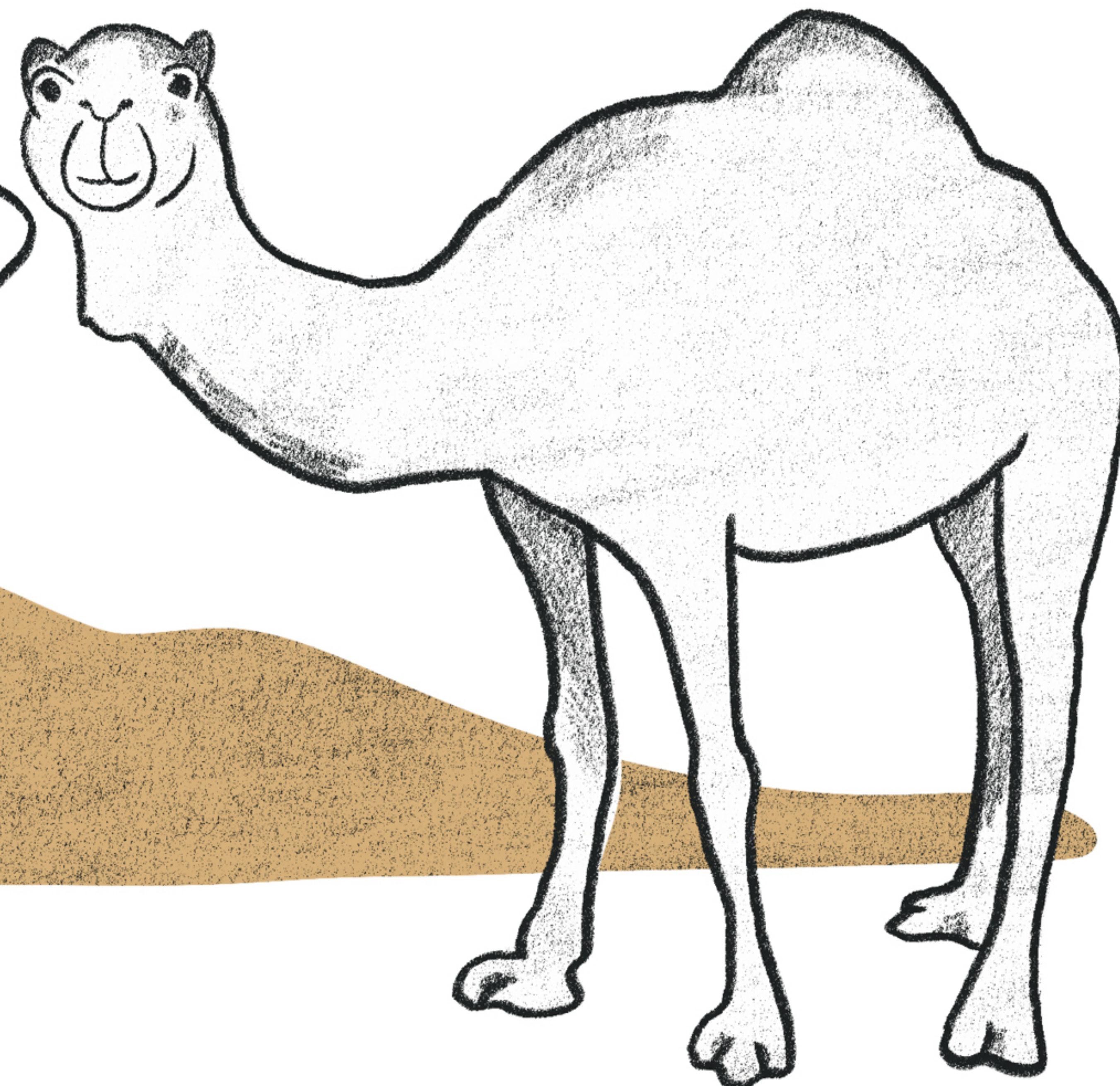
그렇지. 생물들은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단다.

북극곰이 북극에 사는 것 처럼요?

맞아. 북극곰처럼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낙타처럼 사막에 사는 동물도 있지.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야! 이삭이가 중요한 점을 알아냈구나!"

"아~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나리와 이삭이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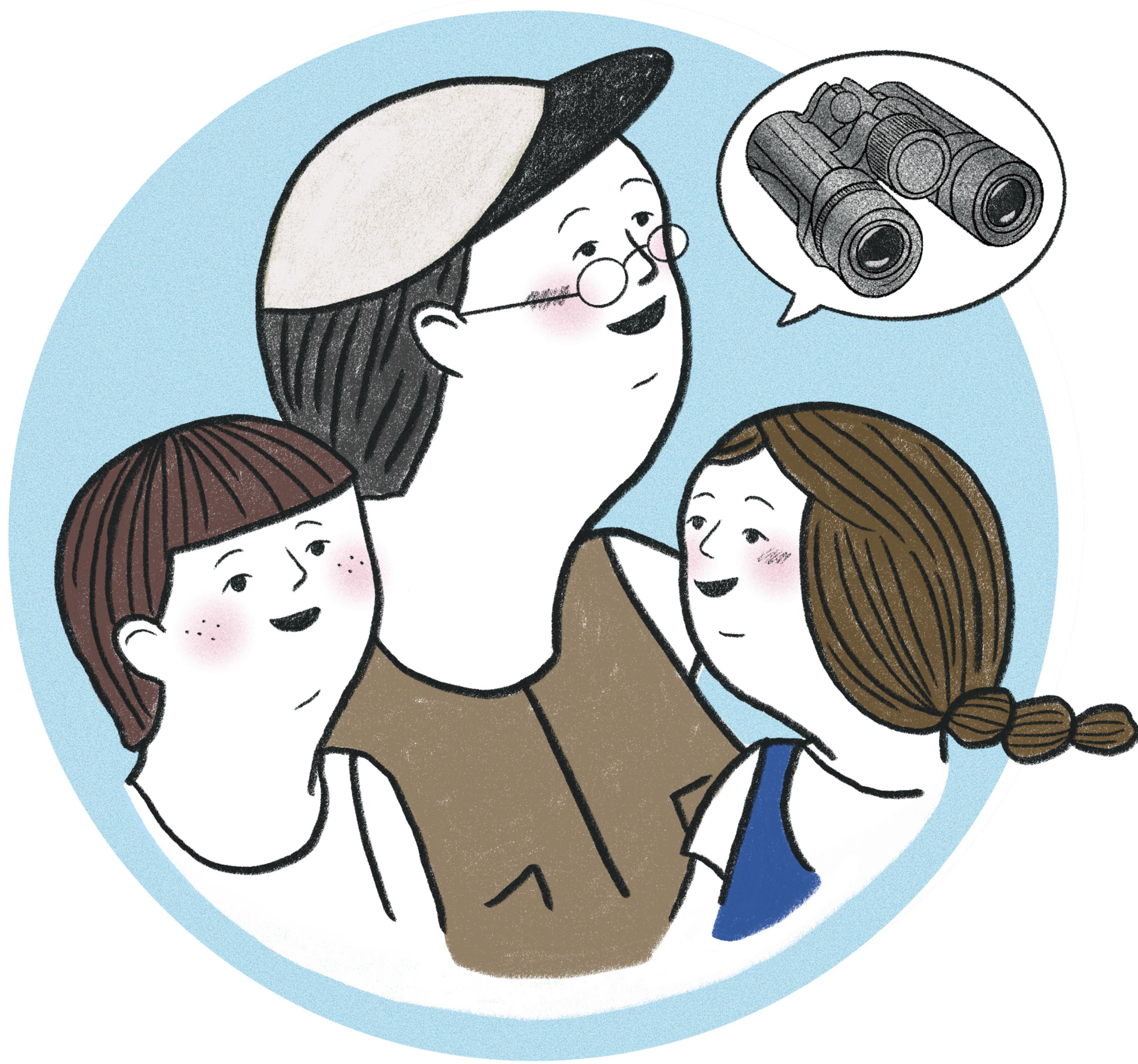


"얘들아, 우리 진짜 흰목물떼새를 보러가지 않을래?."

"진짜요? 어떡해요?"

"갈래요! 갈래요!"

"그럼 새들이 놀라지 않게 차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가 볼까?."



나리와 이삭이 그리고 삼촌은
망원경을 들고 흰목물떼새를 찾아 나섭니다.

사박사박
사박사박

신이 난 나리와 이삭이의 웃음 사이로
모래톱을 걷는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흰목물떼새는 어떻게 생겼어?

흰목물떼새를 관찰해요.



몸길이
19~21cm

암수 외형이 비슷해
구분이 어려워요!

번식기는
3~7월이에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급

하천과 냇가의 자갈밭,
산지의 물가, 해안의 모래밭 등에
서식하는 텃새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어요!

보통 3~4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22~28일 정도
알을 품으면 새끼가
부화해요!



작은 자갈, 마른풀, 조개껍질 등을 깔고
알을 낳아요.

나무 위가 아니라 바닥에 둥지를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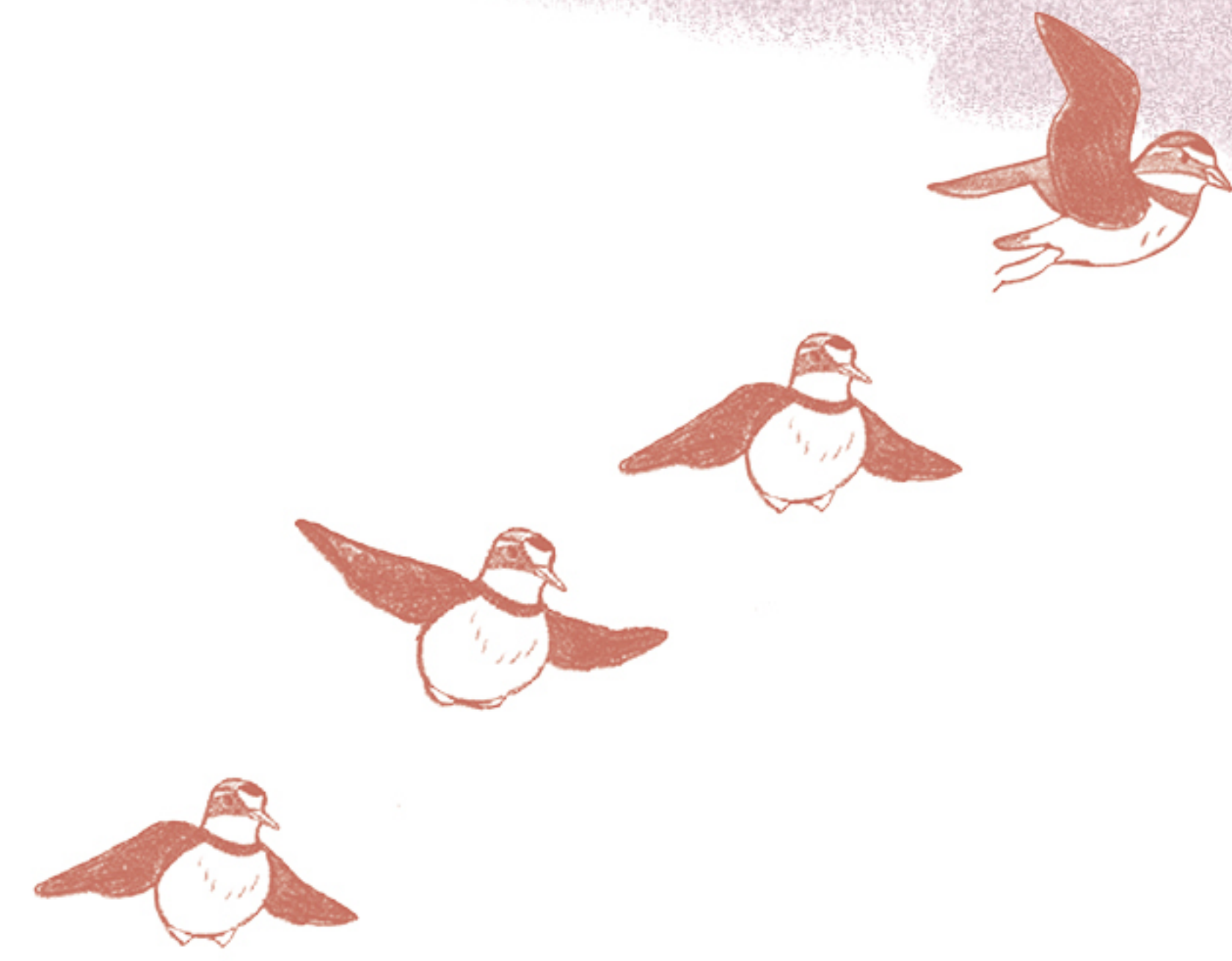


흰목물떼새가 위험요소를 피해
둥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놀이
1



흰목물떼새의 의상.행.동



의상행동이란?

말을 하지 않는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속인다는 사실! 알고있었나요?

카멜레온이나 문어처럼 보호색으로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독을 가진 다른 생물인 척 하는 것을
'의태'라고 해요.



지나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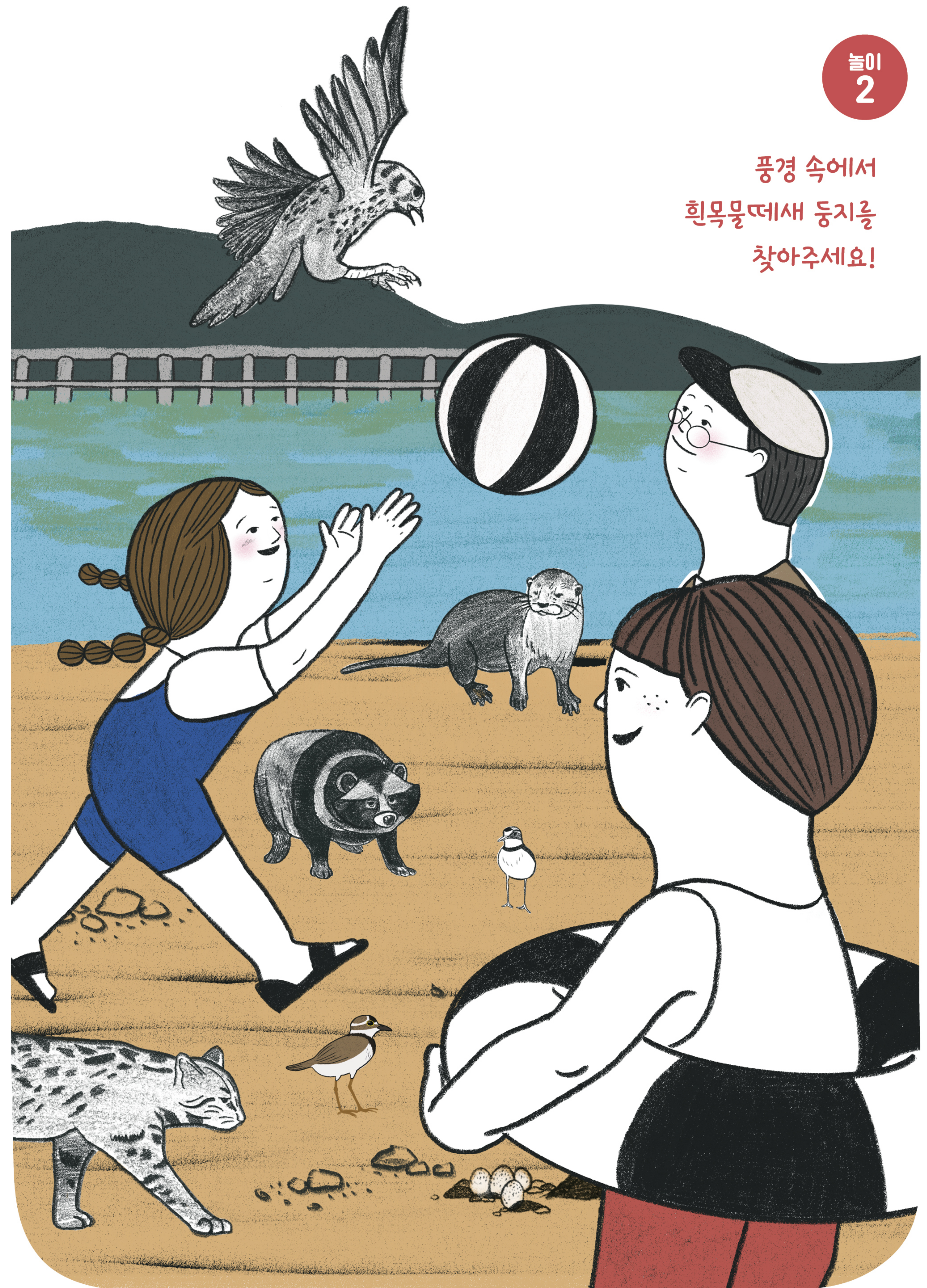
하지만 모습이 바뀌지 않는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은 척 하는 '의사 행동'이나
다친 척을 하는 '의상 행동'을 해요!

그 중에 나무가 아닌 땅 위에 둥지를 트는 새들은
천적이 나타나면 다친 척을 해서 둥지로부터 먼 곳으로
유인한 뒤 도망가는 '의상 행동'을 한답니다.



우리 책에서 만난 흰목물떼새도 의상행동을 한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풍경 속에서
흰목물떼새 둥지를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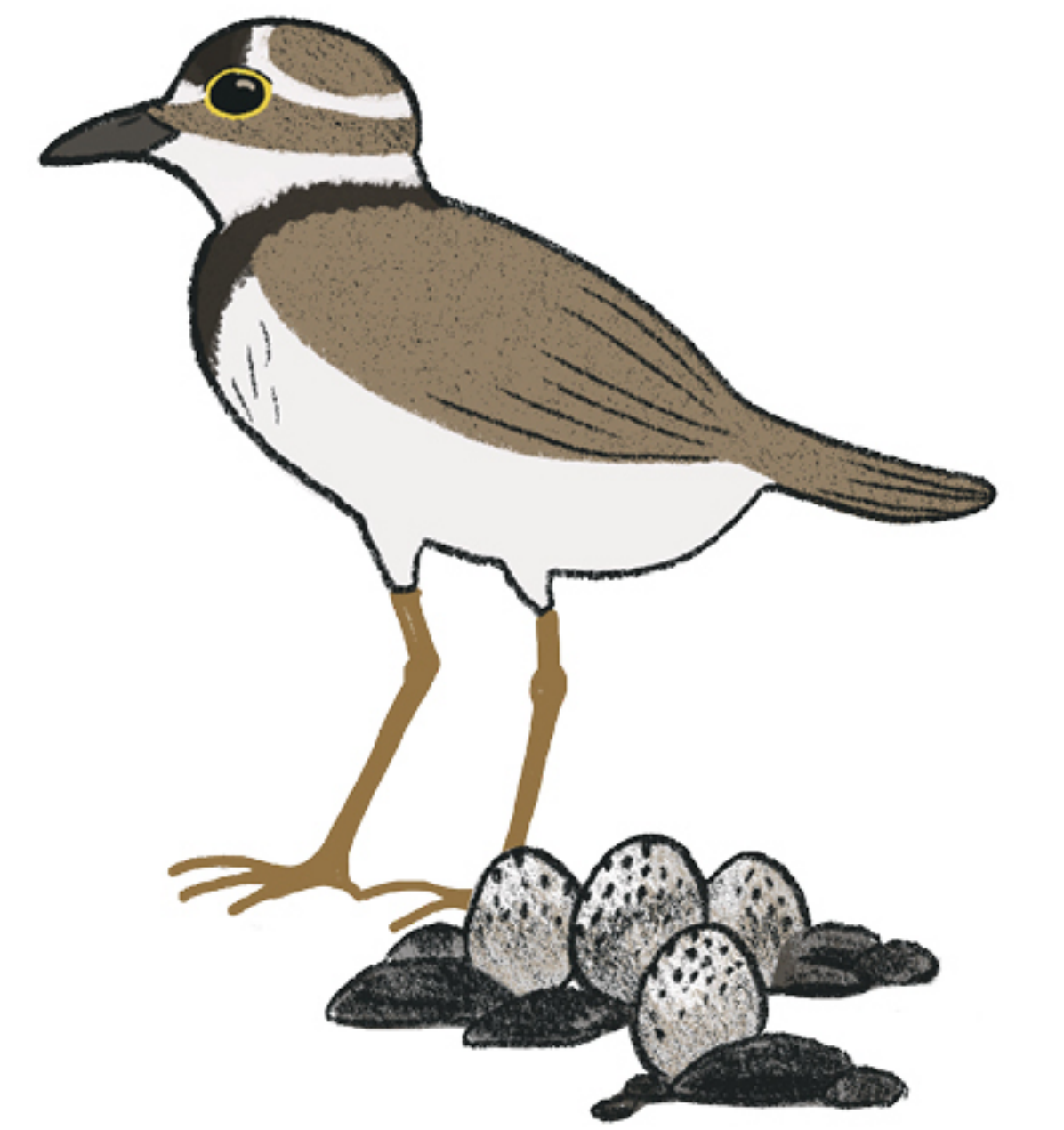


해답



흰목물떼새를 위협하는 천적들

- ① 황조롱이 ② 수달 ③ 너구리 ④ 삿



발행처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2층 (연남동)
 T. 02)338-9572~4 F. 02)338-9575
 H. www.ecoin.or.kr

기획 홍숙경, 이재욱 (생태지평연구소)
 글 이재욱, 김윤전
 그림 정김소리
 감수 박종길 (국립공원공단)
 도움 박형욱 (외일드넷)

제작 (주)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INNO



